

세계한상대회 참가 광주 출신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 “고향 투자 늘리고 지역인재 보듬겠다”

“고향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젊은 지역 인재는 보듬을 것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지난 29일 개막한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한 박종범(56·재유림한인총연합회장) 영산그룹 회장은 남다른 애乡심을 표출했다. 연매출 1조원대 그룹의 수장답게 고향 광주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

그는 한상대회 폐막일인 31일 광주시와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여기에 광주 기업인 광산시추회사 한진디엔비와 5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도 체결했다. 대회 기간 동안 금호타이어와

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 기업, 자동차 부품·조립공장 등 제조업체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실제 박회장은 이번 한상대회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입구에 가장 큰 전시부스를 마련했다. 국내 기업이 아닌 한상이 직접 부스를 만들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는 “서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영산그룹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광주지역 기업들과 사업파트너가 되려면 규모부터 알리는 게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안벽했다”고 말했다.

성공한 기업가답게 지역 인재들에게 조언도 남겼다. 조선대를 졸업한 그는 “지방대 출신은 취업이 힘들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남보다 2~3배의 노력과 투자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한상기업을 일군 박회장은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과 유럽 한인총연합회장을 맡

## 광주시와 1500만달러 투자협약 체결 연매출 1조... “성공뒤엔 광주 혼 있어”

수출증대 협약도 진행하는 한편, 한 LED 업체에서 생산하는 터널등을 크로아티아로 수출하는 협약도 맺었다.

박 회장은 “성공 뒤엔 ‘광주의 혼’이 있었다”고 단언하며 “그들이 ‘영산’인 것도 영산강 인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이끄는 영산그룹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15개국에 26개 법인을 두고, 자동차와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 산업용 장갑, 석유화학 제품, 보일러 등 주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최근에는 제조업까지 분야를 넓혀

이러 “그 동안 먼 발치에서 고향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지역 기업들을 둘러보니 대단한 기술을 가진 여러 기업들이 많았다”며 “광주지역 기업의 기술력을 남미시장과 서아프리카 등 새로운 해외 시장에 소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상대회를 치르겠다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 박 회장은 “강 시장이 열정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모든 부분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한상과 지역기업을 연결시키려는 활동이 적극적이어서 모든 한상들이 광주에서 ‘한 번 더’를 외칠 정도로

## ‘큰손’ 한상들 광주서 사흘간 50억 풀었다

### 호텔 꼭 차고 상무지구 식당 북적

광주 상무지구 일대 상인들이 오랜만에 ‘합박웃음’을 지었다.

지난 29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한상들이 ‘큰 손’ 역할을 톡톡히 한 것.

폐막일인 31일까지 한상은 물론, 대회를 찾은 국내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미팅과 접대, 각종 식사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50억

여원대의 현금이 광주지역에 풀렸을 것이라고 대회 주최 측은 추산했다.

상무지구의 한 한식당 업주는 “점심과 저녁식사 모두 밀려드는 외부 손님들로 정신없는 사흘을 보냈다”며 “한상 손님들의 투숙한 지갑 덕분에 매출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한 주점 업주는 “거물급 한상들

이 한 번에 수십만원씩 술값을 지불하면서 모처럼 ‘대박’ 매출을 기록했다”며 “바쁜 한상들이 하룻밤에도 수 차례씩 식당을 옮겨다니면서 일대 주점들이 모두 호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홀리데이인광주 호텔과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도 동시에 만실을 기록했다.

10월 초 열린 영암 포틀러원(F1) 대회에 이어 한상대회까지 열리는 등 지역의 잇단 국제행사 덕분에 광

주지역 특급호텔들은 꾸준한 매출고를 올렸다. 여기에 1000실이 넘는 지역 숙박업소가 100% 마감되면서 ‘한상 특수’를 누렸다.

행사 막바지를 맞은 디자인비엔날레도 한상들의 단체관람행렬이 이어지면서 400여명 가까이 관객을 유치했다.

상무지구의 한 일식당 업주는 “여러 국제행사가 있었지만 한상 대회처럼 단기간에 ‘돈을 풀고 간’ 행사는 드물었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상대회가 매년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미소지었다.

## ‘적자잔치’ 벌이는 전남지역 축제

22개 142억 투입해 125억 적자... 6개 축제만 수익

전남지역에서 142억원을 들여 22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열린 22개 축제에 1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수입액은 17억원에 불과했다

고 지적했다. 예산으로만 보면, 125억원의 적자를 낸 셈이다.

수익이 발생한 축제는 6개에 불과했다. 함평 나비축제(수익 8억9000만원), 곡성세계장미축제(5억4000만원), 순천만갈대축제(1억4000만원), 강진청자축제(9300만원), 목포해양축제(3500만원), 장흥 정남진물축제(7100만원) 등이다.

이 6개 축제도 56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17억원에 불과해 수익률은 31%에 그쳤다.

반면 1억9000만원을 들인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억4000만원의 수익을 발생해 수익률은 276%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지자체가 축제 개최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줄줄새는 전남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액수 매년 늘어

전남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의원은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는 417가구에 액수는 6억4511만원에 달했다. 가구당 평균 액수는 154만원이다.

2011년 126가구(1억8310만원), 2012년 140가구(2억1281만원) 등 건수 기준으로 3년간 79.4%가 증가했다. 올해는 73가구에 1억8101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 폭이 건수보다 훨씬 컸다. 부정수급액 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유형별로 소득초과가 279가구(66.9%)로 가장 많고, 교정시설입소, 군입대 등 기타 86가구(20.6%), 재산초

과,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각 26가구(6.2%) 등이다.

또 지자체별 무안군이 111가구로 가장 많고, 순천시 68가구, 보성군 47가구, 목포시 31가구, 광양시 30가구, 담양군 23가구 순이다. 곡성, 고흥, 장흥, 영암, 장성 등 5곳은 부정수급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김태원 의원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청 문화광장 스케이트장 착공

3억들여... 내달 21일 개장

광주시가 오는 12월 21일부터 시청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감도〉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청 옆 문화광장에 가로 30mX 세로 60m, 1800㎡ 크기의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스케이트장 설치비도 3억원이 투입됐으며, 주변에 운영본부, 물품보관소, 안내소, 사무실, 매점, 북카페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시체육회에 위탁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이용 요금은 서울광장처럼 시간당 1000원(장비대여료 무료)을 받기로 했다.

시는 12월 21일부터 1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같은 달 28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스케이트장 설치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월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처럼 시청 문화광장에 빈공간을 임시로 설치해 시민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총인비리 입찰제한 5社 가처분신청 내기로

총인처리시설 공사비리 혐의로 2~6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대립산업 등 5개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지난 31일 대립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입찰제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찰 제한이 시작되는 오는 6일까지 광주 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광주시의 입찰제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5개 업체 중 대립산업과 현대건설 등 2개 업체는 지난 30일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학**

# 북경당 인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원/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전도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 영광 → 어등산 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10-2475-0933

##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열암,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최대 ~80%**  
금리는 낮게 **최저 4.3%~**

**광주 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